



Passion for Work, Readiness for Future, Care for People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김준식 동문

EMBA 04학번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을 맡고 있는 김준식 소장은 KAIST Executive MBA를 첫 번째로 졸업한 2004학번 동문이다.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포스코 경영기획실장, 마케팅부서 실장을 거쳐 지난 2월부터 광양제철소장에 임명됐다. 'Passion for Work, Readiness for Future, Care for People' 라는 삶의 모토를 실천하며 포스코 3.0시대를 위한 준비에 앞장서는 김준식 소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Passion for Work

김준식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은 포스코의 설립 사명인 '제철보국(철로써 나라를 흥하게 한다)' 과 박태준 명예회장이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제창한 '우향우 정신(실패하면 우향우해서 영일만 앞바다에 모두 빠져 죽자)' 으로 무장한 진정한 포스코인이다. 1981년 포항종합제철(주)에 입사하여 30년 동안 한 길을 고집한 끝에 연간 270만 톤 규모의 비가공 된 강철을 생산하는 광양제철소의 소장이 되었으니 첫째 모토인 'Passion for Work' 는 말하지 않아도 이력에서 저절로 드러난다.

Readiness for Future

25년간 포스코인으로 지내면서 'Readiness for Future' 에 대한 갈증이 느껴질 무렵, 김준식 소장에게 KAIST EMBA의 기회가 찾아왔다. 프로젝트 중심의 KAIST EMBA 과정은 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강도 높게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김준식 소장이 국내외 투자를 기획하고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부족하게 느껴졌던 부분을 KAIST EMBA는 확실하게 채워 주었다. 또한 커리큘럼 외에 동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Readiness for Future' 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기에, 현업과 학업의 병행으로 몸은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준식 소장은 KAIST 경영대학에서의 시간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 오는 9월 새로이 출범하게 될 EMBA 총동문회의 초대회장으로 내정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Care for People

리더에 대한 생각을 묻자, "사람은 세월과 함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된다" 는 대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며 "나무가 아무리 클지라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가 없듯이, 리더가 조직구성원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조직은 커 나갈 수 있다" 고 'Care for People' 에 대한 철학을 내보였다.

사람을 제대로 돌볼 줄 알아야 조직구성원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력과 결단력을 더해 리더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는 신념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조직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눈높이를 맞추려는 모습이 자연스레 그려졌다.

이처럼 세 가지 삶의 모토를 골고루 실천하고 있는 김준식 소장은 이제 포스코 3.0 시대를 준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는 제철소 건설시기를 1.0, 성장을 2.0, 미래를 위한 또 한 번의 도약을 3.0으로 구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철강 중심의 종합 소재 기업으로의 성장 및 미래 핵심 사업 육성 등을 통한 업(業)의 진화, 글로벌 무대로의 장(場)의 확장, 일하는 방식인 동(動)의 창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한다. 신기하게도 '업(業)의 진화' 는 'Passion for Work' 과, '장(場)의 확장' 은 'Readiness for Future' 와, '동(動)의 창조적 혁신' 은 'Care for People' 과 의미가 통한다. 삶의 모토와 기업의 가치가 이처럼 딱 맞아떨어질 수 있다니 김준식 소장과 포스코는 천생연분의 인연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김준식 소장이 야심차게 열어나갈 포스코 3.0 시대의 성공을 기대해본다.